

홈 > 뉴스 > 기획 > 신탐라순력도

## 박상섭 신탐2리 이장 "마을 길 정비할 터"

데스크승인 2014.02.03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거문오름을 탐방한 관광객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와 머물 수 있도록 '느림의 길' 또는 '산책길'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박상섭 신탐2리장(45)은 "매일 수백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마을은 그냥 스쳐가고 있다"며 "올레길 처럼 자연과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마을길과 휴식 공간, 공원 조성을 위해 국비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형적인 시골이지만 제주시내에서 차로 25분 거리여서 젊은 세대는 물론 예술인들의 입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요즘은 마을에 빈집이 없어서 귀농·귀촌 인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가 유입되면 선인분교장을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므로 공동주택 건립이 필요하다"며 "마을에 살겠다는 외지인들이 늘면서 장기 임대주택 신축에 대한 각종 지원이 절실하다"

**제주新보**

고 강조했다.

박 이장은 끝으로 “거문오름은 이제 마을의 자랑이자 상징이 됐지만 과거에는 일본군 동굴진지가 구축됐고, 4·3 당시에는 주민들이 동굴에서 희생당한 아픔이 서려 있다”며 “척박한 환경과 고난을 극복한 선흘2리가 세계자연유산의 핵심 마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민 모두 단합해 나가겠다”고 말을 맺었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